

看護學生 및 看護員들의 죽음의 恐怖에 對한 調查研究

崔 惠 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 洪 麗 信 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V. 결 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序 論

人間은 다른 動物과 달리 自己가 언젠가는 죽을 運命에 있다는 것을 意識하고 이를 두려워하므로 예로부터 죽음을 解決하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努力을 해 왔다.

죽음에 對한 恐怖는 人間이 지니는 모든 不安의 窮極의인 原因이 되지만 또한 人間은 죽음에 對面하여서야 비로소 그의 自我가 일깨워지고 죽음의 概念을 그의 삶에 統合하게 되어서야 自己 自身을 理解할 수 있게 되며 비로소 自由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의 概念이 統合되지 않는한 삶은 眞實로 理解되지도 않으며 充滿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다.¹⁾

最近의 여러 調查 研究에서 죽음에 處한 患者들은 大部分이 自己의 죽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나 實際로 病院에서 患者와 治療陣 間에 充分한 對話가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²⁾ 이는 事實들이 밝혀지고 있어 特別히 죽음을 直面하고 있는 患者들을 看護할 責任을 맡은 看護員들은 죽음을 삶의 一部이며

人生的 한 段階로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充分히 敎育되어져야 할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看護員이 自身의 恐怖를 알고 죽음을 삶의 一部로 받아들이길 수 있게 된다면 죽음을 앞두고 이를 나누고 싶어하는 患者는 勿論이고 죽음에의 恐怖가 여러가지 身體的 및 精神의 症狀으로 表現되는 患者와 그 家族들의 恐怖를 理解해 주고 같이 나누음으로서 그들이 지닌 恐怖와 不安을 덜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敎育을 통해서 人間은 그의 態度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認識體系를 變化시킬 수 있으므로 죽음에 對한 恐怖도 적절한 敎育에 依해 減少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定해진 敎育課程을 통해서 뿐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接할 機會가 많은 臨床經驗을 통해서도 죽음에 對한 態度에 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前提下에 本研究는 죽음에 對한 恐怖反應이 現行 看護敎育과 臨床經驗에 依해 어떻게 變化하는지를 比較 調査함으로써 看護敎育과 臨床看護의 質的 向上에 도움이 되는 基礎資料를 提供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 假說 I. 죽음의 恐怖는 教育年限이 增加할수록 減少할 것이다.
- II. 죽음의 恐怖는 臨床經驗이 增加할수록 減少할 것이다.
- III. 죽음의 恐怖는 教育과 經驗이 이루어지는 環境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文獻考察

人間이 죽음과 關聯하여 오늘날까지 顯著하게 變化되어온 바로는, 傳染病管理, 生活水準向上 및 抗生劑 出現 등으로 인해 죽음의 原因이 傳染病, 急性消化器 疾患 등에서 부터 癌, 心臟 및 循環器 疾患, 老患 등의 慢性病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죽는 場所가 家庭內에서부터 차츰 家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病院 등의 組織化된 場所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⁰⁾

이런 變化는 人間의 죽음을 組織化함으로써 日常化 하게 되고, 마땅히 尊敬과 경건함을 지녀야 할 人間의 죽음이 오히려 機械化되고 非人間化되는 傾向을 招來하게 된다.

E. K. Ross 는 사람들이 여러 次元으로 죽음의 恐怖를 克服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거리도 죽음에의 恐怖는 누구에게나 一般적으로 存在하는 것이며, 變하는 것은 단지 죽음에 對處하고 이를 다루는 方法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

죽음의 態度和 關聯된 文獻은 대개 두 種類로서, 하나는 죽음에의 恐怖를 否定하고 또 하나는 이에 지나치게 注意를 集中하고 있다.⁽⁶⁾ 그러나 兩便이 모두다 이 社會에서 죽음과 關聯된 奉仕의 組織을 좀더 人格化하고 人情있게 하도록 돕는것이 重要하다는 點에는 意見을 一致하고 있다.

죽음에 對한 概念의 發達은 約 5 歲까지는 죽음은 一時的인 離別로서 永遠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約 5~10 歲間 죽음을 擬人化 하게되어 사람을 데려가는 무지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이 時期以後라야 비로소 죽음은 永遠하며 우리 모두에게 避할 수 없이 일어나는 普遍的인 過程으로 認識된다고 한다.⁽⁷⁾⁽⁸⁾⁽⁹⁾

죽음에 對한 生物學的 側面에서의 說明을 C. G. Jung 에 依해 살펴보면, 生命은 하나의 에너지 過程이므로 다른 모든 에너지 過程에서처럼 分明하고도 不可逆적으로 하나의 目標 即 休息을 向하여 進行되

며, 停止된 最初의 狀態에서 防害되어 탄환의 拋物線같은 生命曲線을 그리다가 結局 다시 休息의 狀態로 돌아가는게 죽음이라고 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죽음의 精神的인 側面에서의 解決을 爲해 많은 사람들이 努力하여 여러가지 見解들을 보이고 있는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眞正한 삶의 始作으로 받아들였으며, 眞理는 人間의 感覺의인 कै락으로부터 超越하여 存在하며 肉體의 破壞가 삶의 本質인 靈魂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眞正한 삶은 人間의 日常的 存在인 거짓된 삶으로 부터 自由로워 질것을 要求한다. 即 죽음으로 困한 肉體의 解放이 眞正한 삶을 가져온다고 하였다.⁽¹¹⁾

이는 東洋에서 莊子가 그의 初期에 나타내고 있는 厭世觀에 依한 죽음의 禮讚⁽¹²⁾ 과 비슷한 樣相을 띄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莊子 後期에는 達觀하여, 삶과 죽음을 超越하여 天地自然의 大道와 一體가 됨을 主張하고 있다.⁽¹³⁾

A. J. Toynbee 는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큰 人間의 問題에 人間의 意志가 作用되지 않는다는 不條理속에서 人間은 살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죽음에 즈음하여 人間의 靈魂은 宇宙의 背後에 있는 超人的인 精神的 存在속에 다시 흡수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¹⁴⁾

대체로 西洋社會는 삶과 죽음을 二元化하여 죽음은 갑작스런 것으로서 終末을 意味하며 不可逆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事實上 人間生活에서 철저한 認識次元을 거쳐 죽음을 解決하는 境遇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即 깊은 內的信仰을 지녔거나 徹底한 無神論者일 境遇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相當히 容易하나 이들은 極少數이고 大部分의 사람들은 그 中間 어딘가에서 죽음에의 恐怖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¹⁵⁾

最近 죽음에 直面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過程에서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豫測할 수 있는 過程을 거쳐서 받아들여진다는 事實을 證言하는 사람들이 있다.

E. K. Ross 는 大部分의 사람들이 죽음에 直面하여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밝게되는 過程으로서, 否定과 隔離(No, not me)→憤怒(Why me)→交渉(Yes me, but)→憂鬱(Yes, me)→收容의 5 段階를 提示하고 있는데⁽¹⁶⁾ 이 全過程을 通하여 理解力있는 看護員의 適切한 도움은 보다 容易하고 편안하게 收容의 段階에 到達할 수 있도록 도울수 있다고 본다.

죽음을 보내는 사람이悲痛함을 겪게되는 과정을心理學的으로 살펴보면喪失한對象의價値를 그를 회고하는幻想에依해維持하기爲한心理的 努力이라고解釋되며⁸ Lindemann은 이過程을 충격과疑心, 進行되는 자각, 喪失의 回復의 3段階로 나누면서, 이過程이 어느 程度까지는 正常的인 情叙의 反應으로 看做되나, 感情을 너무 抑壓하여 밖으로 表出할 수 없게 되며 病的인 過程으로 進行이 되어 深한 憂鬱이나 自虐, 不眠症, 焦燥感等 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때는 適當한 正서의 排出口를 找하도록 도와주고 괴도움을 理解하며 같이 나누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말하고 있다.¹⁷

Sidney M. Jourard에 依하면, 人間은 그의 存在意味와 價値와 目的이 다른 사람에 依해 認定되고 繼續 強化되면 삶을 繼續하는데 이를 認定받지 못하면 그는 삶을 中斷하기 始作하여 이는 나쁜 사람에 依해 그가 삶을 中斷하도록 招待하는데 對한 反應으로서 自己自身을 破壞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可能性을 더 開發하도록 招待하는 方式을 研究하여 죽음에의 招待보다 삶에의 招待가 더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⁸

Sister M. C. Vaillot 는, 看護員과 醫師의 目標은 보는, 사람이 可能한 限 最大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爲한 看護의 目標은 醫學이 絶望하는 生物學의 限界에라도 恒常 可能한 存在의 完全性으로 患者가 벗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希望을 버리는것 自体가 곧 죽음이고, 看護員은 行爲를 통해서 보다는 그 自身の 存在에 依해 患者에게 希望을 일깨워 줄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看護員自身이 希望을 가지고 이를 불어넣어 줄것을 強調하고 있다.¹⁹ 또한 E. K. Ross 는 사람이 悲劇的 事實에 直面했을때 이에 對處하는 기전이나 방어기전을 各己 經驗하나 이 全過程을 통해 삶에 對한 希望은 持續하는 것으로서 治療院이 먼저 希望을 拋棄하는 것은 禁物이며 繼續 希望을 가지고 時間을 같이 보내고 늘어주며 서로를 나누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

III. 研究對象 및 方法

調査對象: 本 研究를 爲한 資料蒐集은 1974年 10月 21일부터 29日 사이에 總 344名을 對象으로 實施

하였으며, 學校教育과 臨床經驗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에 對한 影響과 이에 對한 學校別 差異를 알고자 하여, 서울醫大 看護學科와 附屬病院 및 高麗醫大 看護學科와 友石病院에서 各기 1學年, 4學年 및 그 學校卒業看護員을 對象으로 했으며 全體 79%의 質問紙 回收率을 보였다. (表 I 參照)

(表 I) 學校, 教育 및 經驗別 표집대상

學校別 回收率	A			B			全 體
	1學年	4學年	看護員	1學年	4學年	看護員	
配 什 數	60	65	75	107	75	55	437
應 答 數	57	64	55	71	71	26	344
回收率(%)	95	98	73	66	95	47	79

看護教育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에 對한 影響을 알기 爲해 看護教育이 始作하는 時期에 있는 1學年과 끝나는 時期에 있는 4學年을 比較하였으며, 臨床經驗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에 對한 影響을 알기 爲해 4學年과 그 學校 卒業 看護員을 比較하였다.

표집대상의 平均年齡은 1學年이 約 19歲, 4學年이 約 22歲 看護員이 約 24歲로 나타났고 宗教는 基督教이 約 44%, 佛教가 約 6%였고 나머지 50%는 아무 宗教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年齡과 宗教面에서는 本 調査結果에 크게 影響을 미칠만한 特殊한 分布樣相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것 알 수 있다.

看護員들의 臨床經驗은 1年에서 2年 사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個月 乃至 1年으로서 比較的 經驗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調査方法: 本 研究에 있어서는 L. J. Collett 와 David Lester 가 죽음의 恐怖를 測定하기 위해 만든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을 번역하여 使用했는데 이 質問紙는 36個의 文項으로 構成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죽음에 對한 恐怖와 죽는 過程에 對한 恐怖를 各기 區別한 4가지 內容을 測程하도록 되어 있다. 各 項目은 Likert 형의 測定法으로서 동감하는 程度를 +1에서 +3까지, 反對하는 程度를 -1에서 -3까지 記載하도록 作成되어 있다.

分析方法: 測定하려는 4가지 內容에 따라 各 集團의 算術平均値를 내어 比較하되, +點數가 높을수록 恐怖가 많고 -點數가 높을수록 恐怖가 적은 것으로 해석하게 되나 이는 相對的인 意味가 있을뿐이고 個個의 點數 自体가 絶對的인 意味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가설 검증에는 4 가지 内容에 따른 集團間의 죽음의 恐怖反應에 對한 點數의 平均値를 比較하여 유의한 差異가 있는지를 t-test 로 알아 보았다.

IV. 研究結果 및 考察

看護教育和 臨床經驗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에 對한 影響을 알기 위해 1學年과 4學年 및 看護員이 나타내는 恐怖反應 點數의 平均値를 比較하여 結果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는 없으나 대체로 1學年, 4學年, 看護員의 順으로 恐怖가 오히려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죽음에 對한 恐怖”에서만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4 가지 内容間의 趨勢를 보면 “자신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죽음 과정”에서는 恐怖가 훨씬 적은 反面 “다른 사람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 과정”에서는 恐怖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參照)

〈表 2〉 敎育과 經驗에 따른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測定値(平均値)

集 團	N	죽 음 에 대 한 恐 怖			
		자신의죽음	다른사람의 죽음	자신의죽는과정	다른사람의죽는과정
1學年	128	- 4.7	6.7	2.5	- 3.0
4學年	135	- 4.7	5.2	3.6	- 2.5
看護員	81	1.8	4.3	3.5	- 1.2
全 体	344	- 4.0	5.5	3.4	- 2.3

〈表 3〉 學校別 敎育과 經驗에 따른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測定値(平均値)

集 團		N	죽 음 에 대 한 恐 怖			
			자 신 의 죽 음	다른사람의 죽 음	자신의죽는 過 程	다른사람의 過 程
A	1學年	57	- 2.4	7.7	2.0	- 3.5
	4學年	64	- 7.4	4.6	2.1	- 5.0
	看護員	55	- 2.8	4.1	3.9	- 2.3
	全 体	176	- 4.3	5.4	2.6	- 3.7
B	1學年	71	- 6.5	5.8	2.1	- 2.6
	4學年	71	- 2.2	5.8	4.9	- 0.3
	看護員	26	0.2	4.9	5.8	1.3
	全 体	168	- 3.6	5.7	3.9	- 1.0

이 測定値를 近來에 美國에서 行해진 調査結果⁽²⁰⁾와 比較해 보면 美國에서는 敎育年限이 높을수록 즉, 看護大學生, 大學院生, 敎授들의 順으로 恐怖가 4

가지 内容에서 모두 減少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比해 本 調査의 結果에서는 한가지 内容에서만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고 다른 3 가지에서는 오히려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4 가지 内容間의 比較를 해 보면 다른 3 가지는 比較的 비슷하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恐怖에서는 本 調査結果가 美國에 比해 훨씬 恐怖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看護敎育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反應에 대한 影響을 알기 위한 假設 I, “죽음의 恐怖는 敎育年限이 增加할수록 減少할 것이다”를 檢證하기 위해 1學年과 4學年の 恐怖反應點數의 平均値를 比較하여 그 差를 t-test 로 검증한 結果 表 4에서 보는데로 1學年과 4學年間에 意味있는 差異가 없는 것을 알수 있다.

〈表 4〉 1學年과 4學年間의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의 比較

죽음의恐怖	集 團	平均値	標準偏差	t value	有意性
자신의죽음	1學年	- 4.7	10.10	0	P> 0.05
	4學年	- 4.7	10.10		
다른사람의 죽음	1學年	6.7	7.23	1.75	P> 0.05
	4學年	5.2	6.67		
자신의죽는過程	1學年	2.5	5.56	1.65	P> 0.05
	4學年	3.6	5.25		
다른사람의죽는過程	1學年	- 3.0	7.99	0.49	P> 0.05
	4學年	- 2.5	8.61		

臨床經驗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反應에 대한 影響을 알기 위한 假設 II, “죽음의 恐怖는 臨床 經驗이 增加할수록 減少할 것이다”를 檢證하기 위해 4學年과 看護員의 恐怖反應點數의 平均値를 比較한 結果 “다른 사람의 죽는과정”에서만 4學年보다 看護員이 恐怖가 많은 쪽으로 1%水準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表 5 參照)

〈表 5〉 4學年과 看護員間의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의 比較

죽음의恐怖	集 團	平均値	標準偏差	t value	有意性
자신의죽음	4學年	- 4.7	10.10	1.94	P> 0.05
	看護員	- 1.8	9.80		
다른사람의죽음	4學年	5.2	6.67	0.92	P> 0.05
	看護員	4.3	7.33		
자신이죽는過程	4學年	3.6	5.25	1.20	P> 0.05
	看護員	4.5	5.46		
다른사람의죽는過程	4學年	- 2.5	8.61	4.32	P<0.01
	看護員	- 1.2	7.83		

學校差에 의한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의 差異를 알기 위한 假說Ⅲ, “죽음의 恐怖는 教育과 經驗이 이루어지는 環境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를 檢證하기 위해 A集團과 B集團의 恐怖反應 點數의 平均値를 比較한 結果(表 6 參照) “자신”과 “다른사람의 죽는 過程”에서만 各其 1%水準의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이 差異를 表 3에서 比較해 보면 A集團보다 B集團이 恐怖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6) A集團과 B集團간의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의 比較

죽음의 恐怖	集 團	平均値	標準偏差	t value	有意性
자신의 죽음	A(4學年+看護員)	- 5.3	11.07	1.86	P> 0.05
	B(")	- 1.7	9.96		
다른사람의 죽음	A(")	4.4	7.35	1.27	P> 0.05
	B(")	5.6	6.77		
자신의 죽는 過程	A(")	2.9	5.54	3.07	P< 0.01
	B(")	5.0	4.85		
다른사람의 죽는 過程	A(")	- 3.8	8.61	3.51	P< 0.01
	B(")	- 0.6	7.47		

대체로 이와같은 結果들을 美國의 調查結果와 比較하여 解釋해 보면, 美國에서는 教育年限이 増加할 수록 죽음의 恐怖가 減少하는 傾向을 보였는데 본 調査에서는 별다른 差異를 볼수 없었던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方面의 看護가 教育面과 臨床에서 強調되지 않아 왔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으나, 이 兩調査의 差異가 教育의 差도 因한 것인지 아니면 社會文化的 背景等の 差異로 因해 오는 원래부터 存在하는 差異인지에 對해서는 본 調査結果 만으로는 알수 없다.

또한 본 調査 結果로서 各集團間에 죽음에 대한 恐怖反應이 別 差異가 없게 나타난것은 E. K. Ross의 죽음에 대한 恐怖는 어느시대 어느사람에게나 普遍的이라는 說明을 뒷받침한다고도 볼수 있겠으며, 看護員이 4學年보다 “다른사람의 죽는過程”에 대한 恐怖가 큰것은 直接的인 臨床經驗으로 因해 죽음을 더 가까이 經驗함으로써 內面的 恐怖가 表面化하여 現實적으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나 본 結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점이 있다.

學校間的 差異는 “自身”과 “다른사람의 죽는過程”에서만 A集團보다 B集團이 恐怖가 큰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서 學校教育으로 因해 죽음에 대처하고 이를 다루는 方法에 變化를 줄수 있으므로 A集團과 B集團間的 差異가 생긴것으로 볼수있는 可

能性を 提示하고 있으나 이를 明確히 밝히기 위해서는 표집집단의 數를 훨씬 더 크게하여 調査하는 것이 必要하겠고, 實際로 學校間的 差異를 教育課程에 대한 綿密한 調査를 通해 比較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思料되며, 본 調査에서는 差異가 있을 可能性을 엿볼수 있었던 것으로 調査意味가 制限되어 解釋이 되겠다.

本 研究의 制限點으로, 표집집단의 크기가 充分치 않았고 現行 敎科課程에 對한 比較檢討가 施行되지 않았던點 이외에도 調査 道具로 使用한 質問紙가 外國에서 考案 作成되었고, 이를 본 調査集團에 그대로 適用했기 때문에 오는 文化背景의 差異를 勘案하지 못한 點들이 있다.

V. 結 論

本研究는 1974年 10月21일부터 29日사이에 걸쳐서 서울醫大看護學科와 附屬病院 및 高麗醫大看護學科와 友石病院에서 各己 1學年, 4學年 및 그學校卒業看護員을 對象으로 總 344名에게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을 翻譯한 質問紙로써 죽음의 恐怖에 對한 測定을 하여 學校教育과 臨床經驗이 미치는 죽음의 恐怖反應에 對한 差異를 t-test 로써 比較검증 하였다.

本研究의 結果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教育年限이 増加해도 죽음에 對한 恐怖는 減少하지 않았고 意味있는 差異가 없었다.
2. 臨床經驗이 増加해도 죽음에 對한 恐怖는 대체로 意味있는 差異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죽는過程”에 對한 恐怖에서만 意味있는 差異로 臨床經驗과 함께 恐怖反應의 増加를 나타내었다.
3. 學校間的 差異가 죽음의 恐怖反應에 有意한 差異를 나타낸 部分은 “自身”과 “다른사람의 죽는過程”에 對한 恐怖에서 뿐이며 ($P < 0.01$), “自身”과 “다른 사람의 죽음”에 對한 恐怖에 서는 意味있는 差異가 없었다.

參 考 文 獻

1. Feifel, Herman. (Ed) The Meaning of Death, Mc Graw-Hill Book Co., 1965.
2. Hinton, John. Talking with People about to Die, British Medical Journal, 6 July 1974, p. 24~27

3. Ross, E. K. On Death and Dying., Mc Millan Co., New York, 1969.
4. Elder, Ruth. Dying in the U. S. 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Aug 1973, p. 171 ~184
5. Glauser, Barney G. and Strauss, Anselm L., Awareness of Dying., Aldine Publishing Co., Chicago, 1968.
6. Ross, E. K. op. cit. On the Fear of Death.
7. Feifel, Herman. op. cit. p. 80~81.
8. Kolb, Lawrence C., Modern Clinical Psychiatry., 9th ed. W. B. Saunders Co., 1973, p. 56~57.
9. Ross, E. K. et al., On Death and Dying., J. A. M. A., July 1972, p. 174.
10. Feifel, Herman. op. cit. p. 45
11. Ibid. p. 67~68.
12. 김동성역, 장자., 을유문화사, 1963, p. 35~36.
13. Ibid. p. 8.
14. Toynbee, A. J. 미래를 살다, 문예출판사, 1971.
15. Ross, E. K. et al. op. cit. p. 179.
16. Ibid. p. 176~177.
17. Aguilera, Donna C. et al. Crisis Intervention., The C. V. Mosby Co., Saint Louis, 1970, p. 81~87.
18. Jourard, Sidney M. & Sister Vaillot, M. C., Living and Dying., A. J. N., Feb. 1970, p. 268~275. p. 268~275.
19. Ross, E. K. op. cit. Hope.
20. Lester, David. et al.,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and Nursing Faculty toward Death, Nursing Research, Jan-Feb. 1974, p. 50~53.
21. Andrews, Linda., The Last Night., A. J. N., July 1974, p. 13056
22. Brown, Norman O., Life against Death., Random House Inc., N. Y., 1959.
23. David, Barton., Teaching Psychiatry in the Context of Dying and Death.,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0 : 11, Nov. 1973, p. 1290 ~1.
24. Durkheim, Emile., Suicide., The Free Press, 1951
25. From. Erich., The Art of Loving., Harper Colophon Books, 1956.
26. Hinton, John., Dying., Penguin Book, 1968.
27. Lester, David.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of the Fear of Death., Psychological Bulletin, Jan. 1967, p. 27~36.
28. Muslin, Hyman L. Partners in Dy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 : 3, March 1974 p. 308~310.
29. Shneidmen, E. S., You and Death., Psychology Today, Aug. 1970, p. 67~72.
30. Stengel, Erwin.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Penuin Books, 1964.
31. Tillich, Paul., The Courage to Be., Yale University Press, The Colonial Press Inc., Clinton, Mass., 1952
32. 유계주, 죽음의 態度에 대한 調査研究, 看護學會誌, 第4卷 第1號, 1974, p. 162~176.

*** Abstract ***

A Study on the Fear of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Choi, Hae Ja.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Hong, Yeo Sh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experience on the fear of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The fear responses were measured by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which is composed of 4 subscales to measure fear of death of self, fear of death of others, fear of dying of self and fear of dying of other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ursing education on the fear of death, the freshmen and the senior class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compared. The senior students were again compared with graduate nurse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linical experience on the fear of death. To investigate the possible institutional difference in the fear response to death among different group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students and nurs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three hypotheses formulated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ear of death will decrease with increased educational level
2. Fear of death will decrease with increased clinical experience.
3. There will be institutional difference in the fear of death.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ear of death between freshman and senior students.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ear of death between senior students and graduate nurses.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es and senior students in the subscale of fear of dying of others in which the nurses were found to be more fearful.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scales of fear of dying of self and fear of dying of others between two institutions.